

전기료 인상 불투명...한전 3분기 연속 흑자에도 '한숨'

200조원대 채무 하루 이자만 122억원...지출 줄이기 발버둥 고환율·고유가에 희망퇴직 법적 대응 예고 등 약재 잇따라

한전이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도 여전히 200조원대 채무로 허리끈을 죄고 있는 가운데 갖은 약재에 직면했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 시기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인건비 감축을 위해 실시한 희망퇴직자 접수에서, 퇴직자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들이 경영진 고발을 예고하면서 뒤숭숭한 모양새다.

4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2조 4502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122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 갖은 노력을 하

고 있는데, 최근 중동발 국제 정세 악화로 인한 고환율과 전기 생산 및 구매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엔저 현상과 함께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뛰는 등 하반기 중에도 고환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최근 석유수출국기구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유가 안정을 위해 오는 2025년 말까지 감산 연장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기름 공급 부족 문제로 하반기 중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전기 생산비도 오르면서 한전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전체 매출 중 전기판매 사업

은 63%로, 한전 입장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김동철 한전 사장 역시 취임 직후 꾸준히 '전기요금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 혹은 그 시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달 27일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며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전의 최근 연속 3분기 흑자 행진이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한전이 흑자 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영업이익(연결기준)은 지난해 3분기(1조9966억원)→4분기(1조8843억원)→올해 1분기(1조2993억원)로 매 분기 감소하고 있다.

또 연속 흑자 기록으로 부채 규모가 2조원가량

줄었지만, 올 한 해 이자 규모만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자회사 배당금을 당겨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가 하면, 한전기술 지분을 일부 매각하고, 매년 지급해왔던 직원 명절 상여금과 기념일 지원비, 유급휴무 제도를 폐지하는 등 지출 줄이기에 발버둥을 치고 있다.

한전이 창사 이래 두번째로 실시한 희망퇴직 신청도 비슷한 맥락이다.

한전은 지난 4월 30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전체 직원 중 '입사 20년차 이상' 직원이 304명(82%), '입사 4~19년차' 직원이 65명(18%)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149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고연차 간부들을 우선 선정해 위로금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두시간 내홍이 불거

졌다.

한전은 '2022년 경영평가성과급 반납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희망퇴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희망퇴직자 위로금 재원 이상(150명)으로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 ▲희망퇴직 위로금이 적은 순 ▲정년 잔여기간이 짧은 순 ▲근무 기간이 긴 순 등을 순차 적용해 희망퇴직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희망퇴직 신청자가 재원수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퇴직 위로금이 적은 저연차 직원이 빠져야 하지만, 고연차 간부들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자가 선정되면서, 일부 직원들은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탈락자들은 사측에 명확한 탈락 사유 공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탈락된 일부 직원들은 경영진을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DN

정보보안 협력사들과 상반기 청렴소통간담회

한전KDN은 지난달 23일 서울인천지역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정보보안 유관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청렴소통간담회'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협력기업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관계 강화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전 KDN 보안사업처 및 협력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동영상 시청 등 청렴·윤리교육을 시행했다.

이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자유토론을 통해 청렴문화와 보안사업에 대한 상호이해도도 높였다. 또 청탁금지법의 개념과 처벌 규정 및 사례 교육을 통해 사내 갑질 금지와



인권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기재된 '누출금지 대상정보' 11가지 항목에 대해 교육하기도 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재해도급 모

니터링 강화 등 산업 전반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비롯한 중요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배수장 가동훈련

여름 집중호우 대비 시설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전남본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150개소에 대해 재난상황을 가정한 실제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상황 가정 메시지를 전달받는 즉시 배수장 가동 책임자가 현장에 도착해 배수장을 가동한 뒤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남본부는 수리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36개 주요 저수지에 대해 비상 대처훈련을 하는 등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대비에 주력하고 있다.

비상대처훈련은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비상 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별로 유관기관과 협업해 저수지 사면 유실 상황과 월류 상황 등을 가정해 가동훈련이다.

조영호 전남본부장은 "최근 예견할 수 없는 이



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남본부는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가동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PS, 공기업 32곳 경영성과 평가 1위

조직운영·일자리 창출 높은 점수

한전KPS는 최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전국 공기업 32곳의 경영성과를 조사·분석해 발표한 결과 '전체 1위'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 부문별로 보면 재무성과 부문에서 참여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조직운영·관리 및 일자리창출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 한전KPS는 개별재무대표 기준 매출액 1조 5230억원, 영업이익 1975억원, 당기순이익 1618억원 등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기업의 재무상황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

상비율은 244배로 조사 대상 공기업 중 가장 높았고,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3.9%p 상승한 13%를 기록했다.

이같은 성과는 한전KPS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춰 신성장사업에 집중해 해외시장 확장에 주력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한전KPS는 설명했다.

한전KPS는 지난 2022년 해외 부문 원자력발전 사업에서 사상 최초로 매출액 1000억원을 돌파하고, 화력발전사업 매출액 역시 전년보다 19% 상승한 1394억원을 달성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우루과이 전력청(UTE)과 2년간 최대 5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는 '폰타

델 티그레 복합화력발전소 운전장비(O&M)사업'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남아공 전력공사(ESKOM) 소유의 화력 및 원자력 16개 발전소 정비계약을 848억원 규모로 체결하기도 했다.

또 올해는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및 두산에너지 리티와 3자간 '노후발전소 성능개선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발전정비 기술력 해외수출을 확장하고 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정부 에너지정책에 발맞춰 전사적 역량을 결집한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원자력·화력 발전 정비시장을 꾸준히 넓혀가고 신재생, 원전수출, 원전특화, 성능개선 및 해외 화력과 같은 5대 신성장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T, 후계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초청 간담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3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춘진 aT 사장과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회장, 제 21대 신임 임원진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농업계의 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 논의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농업의 선진화 및 환경·사

회·지배(ESG) 경영을 선도하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T는 지난달 30일 '김치 수출성과 공유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고, 지난달 31일에는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캄보디아 국회 태참료은 사메디(TEPCHAMROEUN SAMEDI) 자문관을 만나 K-푸드의 수출 현황과 유럽 및 미국 시장 진출관련 노하우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